

2020 KCA Media Issue & Trend

01 · 6

트렌드리포트

프랑스

공익프로그램 및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현황

1. 들어가며

2. 공익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스템

- 2.1. 국립영상원(CNC) 역할
- 2.2. 공익 프로그램 지원 시스템

3.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체계 및 정책 지원 현황

- 3.1.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체계
- 3.2. 다큐멘터리 지원 현황

4. 마치며

프랑스

공익프로그램 및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현황

박태순(미디어로드)

요약문

프랑스는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보호하고, 문화·예술 유산의 현대화와 재가치화를 위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가장 활발하게 국가적 지원을 하는 나라다. 그중에서 방송 및 영상 문화에 대한 지원 정책은 문화부 산하의 국립영상원(CNC)가 실질적인 집행기구이다. CNC는 영화, 영상, TV채널, 광고 등에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 예산을 조성하고 기금을 마련한다. CNC는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상문화유산의 발전, 그리고 프랑스 영화 및 영상 문화의 전 세계 전파를 위해 기획 및 제작, 시청각 혁신, 뉴미디어 분야, 다양한 이미지 구현, 수출을 독려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특히 CNC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픽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공연영상 및 문화정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독립제작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분야의 경우, 사회문제, 예술·영화·공연영상, 동물·환경, 역사, 과학 및 스포츠 등과 관련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1. 들어가며

프랑스에서 공익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은 CNC(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가 주도한다. CNC는 1936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프랑스 영화 및 시청각 문화의 중흥과 현대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CNC의 직무체계는 영화국, 시청각국, 영상문화 유산국, 유럽 및 국제 담당국, 디지털국, 커뮤니케이션국, 재정및법률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 부서는 영화, 텔레비전프로그램, 영상문화유산의 발전, 그리고 프랑스 영화 및 영상 문화를 유럽과 전 세계에 확산하기 위해 프랑스의 영화 및 영상 사업 종사자들을 위해



재정, 행정 및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융합 미디어 시대를 맞아서 각종 영상 장비의 현대화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 영화와 영상문화는 CNC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그 역할이 지대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나친 국가 의존으로 인해 자립성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프랑스 영화 및 영상 문화의 다양성, 다원성 그리고 시장 논리를 벗어난 공익 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CNC의 역할은 지대하다.

2. 공익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스템

2.1. 국립영상원(CNC) 역할

CNC는 1946년 설립된 영화 및 영상과 관련된 문화부 산하의 정책기구이다. CNC는 국가예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는 재단이다. 따라서 운영자금은 영화와 시청각 분야의 특별소비세를 통해서 마련한다. 영화 티켓의 10.72%를 특별소비세로 징수하고, 텔레비전 채널이나 방송제작자들을 상대로 광고 및 후원 수익에 대한 특별소비세 그리고 비디오와 VOD에 대한 세금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CNC는 프랑스의 영화나 영상 산업 특히 시청각, 비디오, 멀티미디어 및 게임과 관련한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이다. CNC의 주요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¹⁾

첫째, 영화·영상 활동 및 산업동향을 관찰하고, 기술적, 법률적, 경제 및 사회적 환경과 교육 및 작업활동의 조건들에 대해 관찰한다.

둘째, 공익 차원에서 영화나 영상 산업의 발전과 안정적 재정구조, 영화 및 영상 기술과 시장의 발전을 위해 지원한다. 특히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① 영화, 시청각, 멀티미디어 작품의 생산, 배분, 송출 및 프로모션 등에 대한 지원 ② 영화, 영상 및 기타 시청각 관련 기구들의 창작능력 향상과 현대화를 위한 지원 ③ 영상문화 발전 및 교육 활동을 위한 지원 ④ 국내외 영화 영상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직업 활동에 대한 지원 ⑤ 개발도상국가와의 영화 및 영상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 등이 있다.

1) 2009년 7월 24일 행정명령(l'ordonnance)이 규정하고 있다.

셋째, 영화 및 시청각 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사업자들과 작품 상영 수익 활동에 대해 규제한다.
 넷째, 영화 및 시청각 작품의 생산비용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관리하고 수집하여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영화유산을 수집, 보존 및 복원하고 재가치화 하는 역할을 한다.
 여섯째, 영화, 시청각 작품,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위조나 모방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감시한다.

CNC가 기금을 통해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분야는 콘텐츠 생산 및 준비를 위한 지원(aide à la production et à la préparation), 시청각 혁신을 위한 지원(aide à l'innovation audiovisuelle), 뉴미디어사업계획 및 실험적 경험을 위한 지원(aide aux projets nouveaux médias/expériences immersives), 이미지의 다양성 구현 지원(fonds Images de la Diversité), 프로모션 및 수출 지원(aides à la promotion et à la vente à l'étranger)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지원은 재정이 열악한 독립제작자와 종사자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창작력을 높이며,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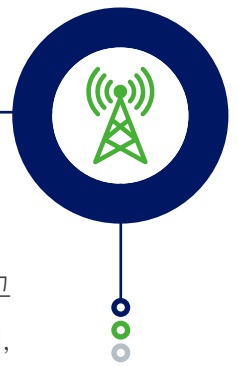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 분야의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2015~2018년 CNC의 분야별 재정지원 현황

지원 분야(백만유로)	2015	2016	2017	2018	18/17(%)
생산 및 준비 지원	233.8	266.8	265.4	255.2	-3.6
시청각 혁신지원	4.4	4.7	4.3	4.6	+8.2
뉴미디어 계획 및 실험적 경험 지원	2.9	2.9	3.7	2.5	-31.6
이미지 다양성 지원	0.5	1.0	0.2	0.9	+280.1
프로모션 및 수출 지원	1.7	2.2	2.9	2.7	-5.1
총액	243.4	277.6	276.5	265.9	-3.8

출처: CNC의 자료를 2015년 이후로 편집함





CNC의 지원사업은 프랑스의 영화 영상 산업과 문화 발전의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비 상업적인 분야에 대한 CNC의 지원은 프랑스 영화 및 영상문화의 다양성, 다원성을 보존하는데 기여한다.²⁾

2.2. 공익 시청각 프로그램 지원 시스템

CNC는 시청각(audiovisuel)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986년부터 기금을 만들었다. 이 기금의 목적은 텔레비전 채널에서 송출하는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업체들과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들이 프랑스 시청각 문화유산을 발전시키고 콘텐츠들을 생산하는 데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혜택 대상은 프랑스 기업으로서 대표나 CEO, 다수 이사들이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유럽연합 출신이어야 하며, 주 거주지가 프랑스이어야 한다. 지원 시청각 작품들은 문화, 사회, 기술, 과학 및 경제 분야 등과 관련한 유산을 내용으로 한 시청각 원형 작품들이다. 지원 분야는 픽션, 애니메이션, 창작 다큐멘터리, 공연 영상물, 문화적 내용을 담고 있는 정기 프로그램들이다.

각 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며, 심사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파나 케이블, 위성, ADSL 등의 망을 통해 방송하는 사업자들과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은 작품이어야 한다.

둘째, 제작할 프로그램에 프랑스 자본이 30% 이상 투자되어야 하고, 제작과정의 50% 이상이 프랑스에서 진행되는 작품이어야 한다.

셋째, 시청각 기금에 의한 총 지원금이 전체 제작비용의 40%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넷째, 중앙정부, 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총금액이 전체 제작비의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공적 지원금이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CNC 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저예산 혹은 방영이 어려운 작품이라는 특성을 입증하여 CNC 회장의 동의로 60%까지 공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 CNC는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으로 프랑스 영화 및 영상 문화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영화 및 영상 작품의 배포 및 송출 그리고 프로모션을 위해 독립영화관 현대화 사업 지원, 비상업적인 콘텐츠와 문화 다큐멘터리 제작 및 송출 지원 그리고 각종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영화제와 영상제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시청각 콘텐츠 및 영화의 해외 진출을 위해 '유니프랑스 필름 인터내셔널(UniFrance Film International)'과 프랑스 TV 인터내셔널(TV France International)을 지원한다.

여섯째, 주제, 포맷, 극작, 촬영 혹은 생산 여건이 까다롭고 혁신적인 작품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저예산 작품은 시간당 10만 유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일곱째, 완전히 새롭게 창작하는 다큐멘터리 장르에 속하는 작품으로 제작하기가 어려운 경우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시간당 15만 유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방식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선정을 통한 제작지원은 독립제작자들이 제출한 픽션, 애니메이션, 창작 다큐멘터리, 영상공연물 제작 프로젝트들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둘째, 자동 심사를 통한 제작지원은 CNC가 지원자의 기본 자격 조건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와 관련된 정기 프로그램, 45분 이하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정규 방송으로 방영), 자동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공연영상물, 다큐멘터리 및 공연영상물을 지원한다.³⁾

셋째, 자동지원은 각 소위원회들의 견해와 추천으로 심사 없이 지원한다. 그 대상을 보면, 방송 시간당 12,000유로 미만의 저예산 픽션물 및 애니메이션, 여러 명의 예술가들이나 교육생들이 참여하는 공연영상 프로그램 혹은 다양한 공연을 편성한 영상물, 같은 해에 동일한 예술가에 의해서 해석된 공연물을 이차로 편성한 영상물에 관한 프로그램 등. 또한 프랑스 방송채널에서 제작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프랑스 지분이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작사들에게는 시간당 12,000유로 이상 소요되는 시청각 콘텐츠 제작계획 및 시간당 18,000유로 이상 소요되는 공연영상 제작계획을 지원한다. CNC는 매 3분기마다 자동지원 대상을 공표한다. 2020년 1월 시행될 자동지원 금액은 시간당 픽션 200,000유로 창작 다큐멘터리 80,000유로, 공연영상 130,000유로, 애니메이션 200,000유로이다.

한편, 2017년과 2018년 CNC의 시청각 장르별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다. 픽션은 2017년에 32.5%에서 2018년 35.5%, 다큐멘터리는 31.0%에서 31.2%, 애니메이션은 22.1%에서 18.3%, 공연영상은 13.2%에서 13.5%, 문화정기프로그램은 1.2%에서 1.5%였다. 픽션에 대한 지원이 2018년에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원은 감소하였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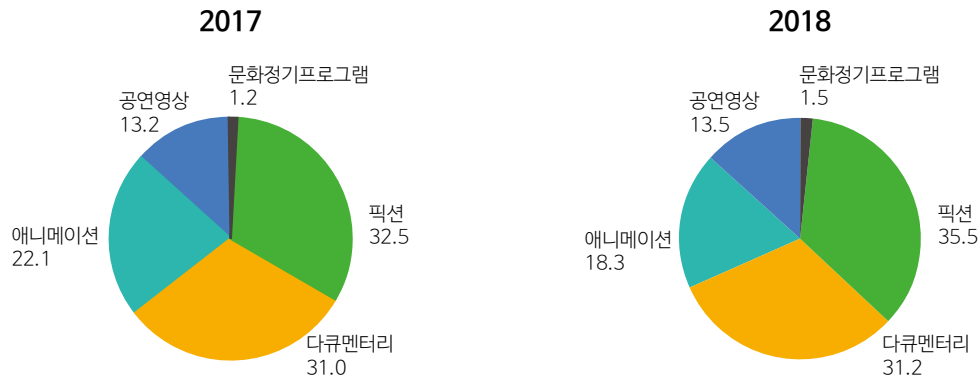
3) 방송시간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다큐멘터리의 경우 시간당 12,000유로, 공연영상물 18,000유로 정도를 지원하며, 선행적으로 제작자는 총비용의 50% 이상을 투자해야한다.

4) 이 지원 비율은 생산 자원과 준비 지원을 합한 총비용이다.





그림 1 2017년, 2018년 CNC의 장르별 지원 비율



출처 : CNC, La production audiovisuelle aidée en 2018

2015년 이후 CNC의 장르별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픽션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다큐멘터리의 경우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픽션은 2015년에 7,040만 유로에서 2018년 8,060만 유로로 증가했으나, 다큐멘터리의 경우 2015년 8,560만 유로에서 7,950만 유로로 감소했다. 그 외에 다른 장르의 경우 매년 유사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텔레비전 픽션물에 대한 수용자들의 높아지는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2 2015~2018년까지 CNC의 장르별 재정지원 현황

지원 장르(백만유로)	2015	2016	2017	2018
픽션	70.4	87.1	86.1	90.6
다큐멘터리	85.6	80.2	82.4	79.5
애니메이션	37.9	62.7	58.5	46.7
공연영상	36.5	34.3	35.1	34.4
문화정기 프로그램	3.4	2.5	3.2	3.9
총액	233.8	266.8	265.4	255.2

출처 : CNC 자료를 지난 4년간으로 현황으로 편집함

3. 다큐멘터리 시장 및 정책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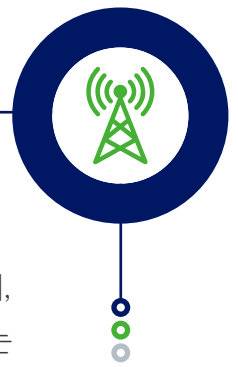
3.1.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다큐멘터리 지원정책은 CNC의 시청각 및 디지털 창작국(Direction de l'audiovisuel et de la création numérique) 내의 다큐멘터리지원과(Service du soutien au documentaire)가 담당한다. 다큐멘터리 지원은 제작 준비에 대한 지원과 제작 지원이 있다. 먼저, 제작 준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견적서와 세부 예산 집행계획서, 그리고 준비 지원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작가와 감독의 이력서, 시놉시스, 시나리오, 제작에 대한 제작자의 의견서 등을 제출한다. 구성작가, 시나리오 작가, 각색자 그리고 기술직 종사자와의 계약서 그리고 송출할 채널 및 방송사와의 계약서도 제출한다. 공동생산의 경우, 타 기업과의 공동작업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한다. 생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인가서(l'autorisation préalable)를 받아야 한다. 사전 인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계좌증명서, 생산지원 지원서, 시놉시스와 시나리오, 제작자 및 감독 신분증, 모든 제작과 관련된 계약서, 영상제작 사업자 증명서, 구성작가, 시나리오작가, 영상감독, 기술직 종사자 등과의 계약서, 송출한 방송이나 채널과의 계약서, 세부 예산 집행계획서, 견적서 등을 제출한다.

한편, CNC는 2014년부터 실행되어온 다큐멘터리 지원내용을 2017년 6월 개선했다. 그 개선내용을 보면, 먼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글쓰기(écriture)와 사업추진(développement)을 위한 지원이 있다. 글쓰기 항목으로는 최소 3,000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글쓰기 지원은 준비를 위한 자동지원과는 별개로 공공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 송출자와의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은 시간당 최소 6,000유로를 지원한다. 또한 오리지널 음악제작을 위해서 작곡가에게 시간당 최소 3,000유로를 지원한다. 몽타주 작업을 위한 지원의 경우, 책임자의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환산한다. 영상촬영 작업시간에 따른 지원은 35일은 12,000유로에서 25,000유로까지 지원하며, 40일은 25,000유로에서 50,000유로까지, 50일은 50,000유로에서 90,000유로까지, 60일은 90,000유로 이상을 지원한다.

CNC는 매년 지원을 받아서 제작한 창작 다큐멘터리에 대해 평가를 한다. 2017년 채널과 송출망을 통해 방영된 다큐멘터리에 평가 결과(Relevés de décisions du CNC sur 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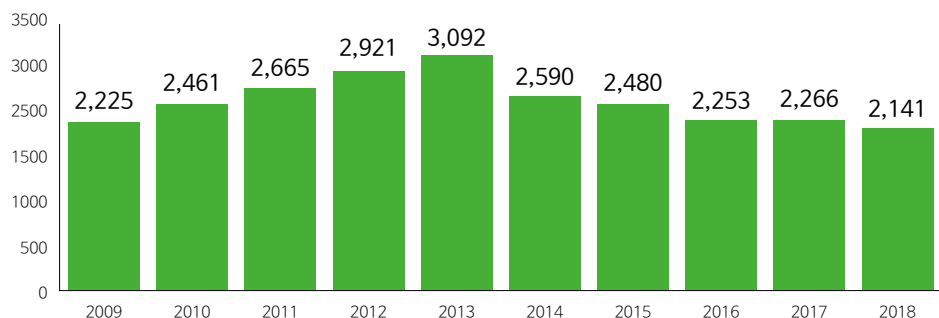


qualification documentaire de création)를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된 작품이 34개이며, 부정적 평가를 받은 작품은 174개에 이르고 있다. 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차기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3.2.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현황

CNC가 2017년에 다큐멘터리 부문에 지원한 금액은 총 8,970만 유로였다. 이 지원액은 2016년(8,960만 유로)에 비해 0.1%가 증가한 액수이나 2015년(9,500만 유로)에 비하면 4.4% 감소한 금액이다. 세부 지원 상황을 보면, 방송다큐멘터리 분야가 9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화다큐멘터리 분야가 2.9%, 다면적 지원(aides transverses)이 2.2%, 수출 1.0%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 편집 지원 0.4%이다. 2018년에는 총 2,141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 10년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지원금이다. 그럼에도 CNC가 지원해서 제작하는 전체 시청각 프로그램 중에서 다큐멘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46.5%에 이르고 있다. 한편, 시간당 평균 지원 비용은 18,190 유로에 이른다.⁵⁾

그림 2 2009~2018년 제작지원 다큐멘터리 총 분량(재생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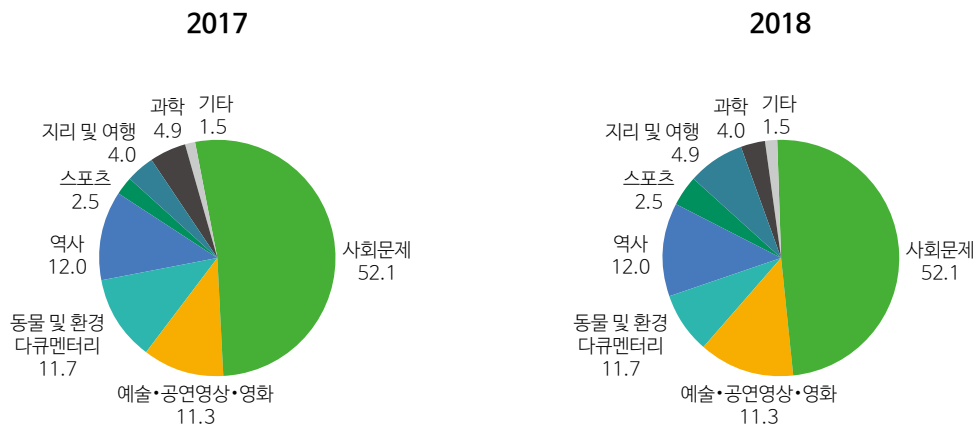


출처 : CNC, La production audiovisuelle aidée en 2018, 2019년 4월 보고서

5) 2017년 CNC가 지원한 총 시청각 프로그램 시간 중에 다큐멘터리 시간은 46.5%이며, 2009년 이후 지금까지 평균은 51.9%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총지원금은 3억 8,940만유로로 전년도보다 2.1% 감소했다. 그러나 시간당 평균 지원 비용은 18,190유로로 전년도에 비해 3.7% 증가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시간당 평균 지원금은 16,260유로로 지난 10년간 평균 1.8%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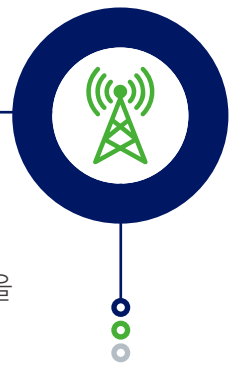
주제별 다큐멘터리 지원 비율을 보면, 사회문제와 관련한 다큐멘터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예술·영화·공연영상과 관련한 다큐멘터리와 동물·환경 다큐멘터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문제 다큐멘터리는 2017년 52.1%, 2018년 48.8%, 예술·공연영상·영화 다큐멘터리는 2017년 11.3%, 2018년 13.1%, 동물 및 환경 다큐멘터리 2017년 11.7%, 2018년 8.2%, 역사 다큐멘터리 2017년 12.0%, 2018년 13.0%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스포츠 다큐멘터리, 지리 및 여행 다큐멘터리, 과학다큐멘터리 및 기타 다큐멘터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림 3 2017년, 2018년 주제별 다큐멘터리 지원 비율



출처 : CNC, La production audiovisuelle aidée en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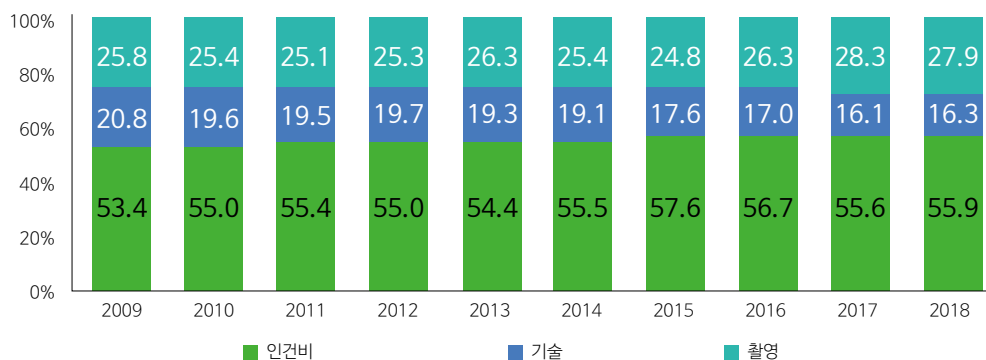
2018년 프랑스 내에서 다큐멘터리에 투자한 비용은 총 3억 5,790만 유로이며, 해외에 투자한 비용은 3,150만 유로이다. 한편, 2018년에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채널들도 다큐멘터리의 제작과 방송을 위해 투자했다. 그중에 공영방송 채널들이 다큐멘터리에 투자한 액수는 전체 다큐멘터리 총 투자액의 67.8%를 차지하였다. 공영방송인 프랑스 텔레비전(France Télévisions)은 총 978시간을 방송하였으며, 그중에 본 방송이 896시간이었으며, 총 지출액은 9,300만 유로였다. 아르떼 프랑스(Arté France)는 총 3,510만 유로를 투자하였으며, 261시간을 방송하였고 그중 본 방송이 257시간이었다. 영화 전문채널인 까날플러스(Canal+)는 380만 유로를 투자했으며, 24시간을 방송하였고 그중 본 방송이 22시간이었다. 민영방송 TF1은 1,240만 유로를 투자했으며, 181시간을 방송하였고 그중 본 방송이 157시간이었다. TFX는 240만 유로를



투자했으며, 23시간을 방송하였다. M6는 970만 유로를 투자했으며, 총 방송시간은 115시간을 방송하였고 그중 본 방송이 110시간이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함에 있어서 비용내역을 보면, 지난 10년간 인건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촬영비와 기술료가 지출되었다. 인건비의 경우 예술가 보호법에 따른 예술인 지출비용, 기타 인건비, 출연료 그리고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술료는 기술비용, 실험실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촬영비는 의상, 분장, 출장비, 관리비, 보험 등 각종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은 각각 인건비 55.9%, 기술료 16.3%, 촬영비 27.9%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 다큐멘터리 제작비용 내역



출처 : CNC, La production audiovisuelle aidée en 2018

4. 마치며

프랑스는 공익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다채널, 디지털 융합 미디어들의 출현으로 인해 상업적 경쟁이 심화되는 방송환경 속에서 공익적 프로그램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기반이 되고 있다. CNC가 추진하는 픽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공연영상 그리고 문화 정기 프로그램 등 5개 분야의 지원은 프랑스 방송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준비 및 사업진행을 위한 지원, 제작지원, 혁신을 위한 지원, 프로모션 및 해외 판매를 위한 지원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들은 프랑스의 공익적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생산, 배포 및 판매하는 전 과정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발전을 이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큐멘터리에 대한 지원은 픽션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대부분 다큐멘터리들이 상업성이 미약함에 따라서 상업채널들이나 콘텐츠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공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CNC의 지원과 공영채널들의 적극적인 투자만이 다큐멘터리 장르를 보호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의 공적 지원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K-Pop과 한류의 주류가 방송문화에 기인함을 감안할 때, 공익 프로그램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프랑스의 영화·영상 문화가 미국의 할리우드에 맞서는 저력을 갖춘 원인 중 하나가 1936년 이래 지속적으로 다양성과 다원성, 문화유산의 보존과 재가치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지원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REFERENCES

1. CNC(2019.08) Fonds de soutien audiovisuel Plaque de présentation générale
2. CNC(2019. 05) Le Bilan 2018 du CNC
3. CNC(2019. 04) La production audiovisuelle aidée en 2018
4. CNC(2018. 06) Les aides du CNC au documentaire
5. CNC(2017. 05) Synthèse du soutien généré en documentaire
6. CNC(2017. 12) Réforme documentaire 2017
7. CNC(2014. 07) Fonds de soutien audiovisuel : Pièces à fournir compte automatique documentaire

